

설소대성형술(Lingual Frenectomy)

설유착증(Ankyloglossia)은 비정상적으로 짧은 소대나 혀의 운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이설근에 의하여 야기되는데 흔히 어린이에서 많이 나타나고 때로는 치료하지 않은 과증식된 설소대를 가진 어른도 볼수 있다. 설소대는 점막으로만 구성되거나 혹은 혀끝이 치조돌기에 연결된 긴밀한 섬유막을 구성하는 짧은 소대이며 이설근을 포함하기도 한다.

자유로운 혀의 운동은 무치악환자가 하악의치를 성공적으로 장착하는데 중요하다. 환자에게 혀끝을 상순에 접촉시키면서 설소대 기능을 시험할 수 있는데 혀끝을 충분히 움직일 수 없다든지 혀의 복면이나 끝이 치조돌기에 제한되어 있는 경우 설소대성형술을 시행한다.

수술방법

① 국소마취 혹은 전신마취하에 다 할수 있으나 국소마취시 양측 설신경 전달마취가 행하여지며 부수적으로 약간의 침윤마취를 한다. 이때 과다한 침윤마취는 설소대의 변형을 가지고 오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A 참조)

② 마취가 되면 혀를 상방으로 치켜 올리고 설소대가 팽팽해 지도록 혀끝 1/4inch 부위를 봉합하여 올린다. (그림 B 참조)

③ 혀의 복면과 설하부소구(Sublingual caruncles) 사이 소대의 중간 부분을 가위로 구강저에 평행하게 절개한다. (그림 B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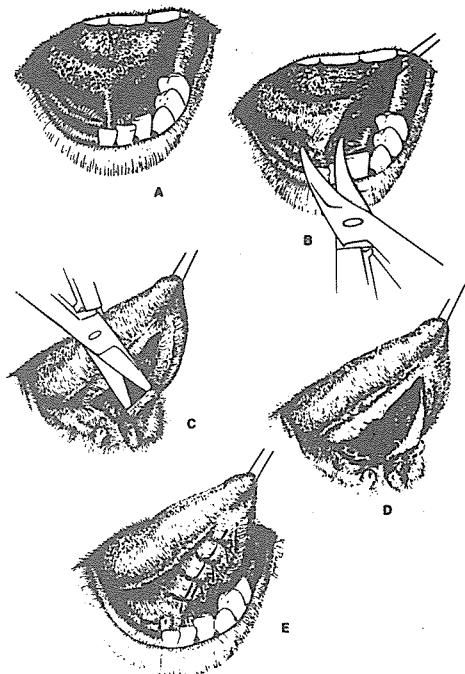
④ 절개선이 Diamond형태로 되면 주위의 설하선, 설하정맥 등의 손상을 피하여 mucosal blaps을 가위로 undermining한다. (그림 C, D 참조)

⑤ 3-0 black silk로 interrupted suture방법으로

직선의 형태로 봉합한다. 이때 설하부소구 부위에 봉합이 안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 E 참조)

슬후처리

보통 일반적인 방법으로 항생제와 진통제 및 구강세척제를 사용하며 혀나 구강저의 종창으로 인한 불편감을 적게 하기 위하여 얼음이나 찬물을 이용하여 냉습포를 시행한다. 봉합사는 5~7일 후에 제거하고 보통 7~10일 후에는 종창이 소실되어 혀의 운동과 발음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일치과기공소

代表 孫 永 受

서울·중구 남대문로 5가 6-25(신한빌딩 402호)

☎ 756-2875 · 2876